

여성학 입문 : 포스트모던 시대의 여성

제5강 여성과 문학, 글쓰기

강사 : 박남희

◆ 현대의 여성 문학

※ 학습목표

현대 문학작품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모습을 서영은의 소설『산행』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 소설『산행』의 줄거리

서영은의 소설 『산행』에서 문학도였던 여성은, 마찬가지로 문학도인 남편을 같은 대학에서 만나 주위의 만류를 무릅쓰고 결혼한다. 그리고 남편을 내조하기 위해 문학도의 꿈을 접고 생활로 뛰어든다. 여성은 남편이 훌륭한 작가가 되어 자신의 고생을 보상해줄 것이라 믿으며 어려운 생활을 감내한다. 남편은 그런 여성에게 의존하며 가정은 전혀 돌보지 않는다. 이런 생활에 여성은 지치고 회의와 자괴감을 느끼지만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모든 것을 건 마지막 글쓰기를 하겠다고 산으로 들어가고, 돌아왔을 때 남편은 동네 체육관 잡역부의 제복을 입고 있었다.

▲ 남성의 성패는 여성의 성패?

우리나라의 대표 여성작가중의 한명인 서영은의 『산행』은 최근에 쓰인 여성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에 대한 모색이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남성을 통해서 투입·반사되어, 남성이 곧 여성 자신의 성공이라는 구시대의 사고를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은 자신이 직접 글쓰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을 위해 그것을 희생한다. 그러나 남편이 산에서 자기와의 대결을 통해서 현실을 얻은 반면, 여성은 남편의 포기로 자신의 꿈,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만약 여성이 자신의 꿈이었던 글쓰기를 했다면 그렇게 자신의 존재가 무너졌을까. 동양에서는 부부일심동체의 논리 하에 남성의 삶이, 곧 여성의 삶을 대변해준다고 생각한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21세기에서도 여전히 여성에게는 내조라는 임무가 부여된다. 그리고 남성의 성공과 실패가 여성의 성공과 실패가 일치된다.

▲ 시대를 역행하는 문학 속의 여성의식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할 것 없이 작품 속에서의 여성의 모습이, 현실보다 더 극복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문학이다. 문학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여성문제에 한해서만큼은 앞서가기는커녕 구시대를 답습하는 폐단을 종종 볼 수 있다. 작가는 오히려 문제제기를 위해 그렇게 썼다고 해도, 일반 독자들은 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그런 여성들의 모습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십상이다. 또한 남성독자들에게 그릇된 여성관을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문학에서 새로운 여성관을 쓰고 읽어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 여성의 신화읽기

여성의 텍스트는 신화를 통해 더 밀도 있게 읽어낼 수 있다. 오늘날 여성에게 부과되는 억압의 형태들,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부장제도를, 남성신화가 여성신화를 누른 신화의 역사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 여신에서 남신으로

맨 처음 신화가 등장한 원시시대의 신은 여신이였다. 원시시대로 소급해갈수록 여신들이 많이 등장하고, 현재의 남신과 여신의 역할이 옛날에는 반대였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에게 신은 자신의 사유나 세계관, 가치관의 투영이다. 그렇다면 신화가 만들어진 당시에는 왜 남신이 아닌 여신을 만들어냈을까.

- 생성자 여성

인간들에게 세계는 곧 자연이였다. 자연이라는 것은 생성(창조)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무언가를 생성하는 것은 남성보다는,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여성의 몫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여성에게 힘과 상징을 부여하고 경외감을 느끼며, 우주만물을 창조하고 번성시키는 신적인 존재로 여겼다.

- 남신의 탄생

처음에는 여신과 남신이라는 대비되는 개념이 없었다. 초창기 신의 모습이 허리나 엉덩이 등이 강조된, 여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 딸과 아들을 낳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며 신의 역할이 남성에게도 분배된다. 여성의 역할은 내재화되는 반면, 남성에게 분배된 물리적인 힘의 역할이 현실과 더불어 커지게 되면서, 남신과 여신의 중요성은 전도된다. 예를 들어 여성의 변화를 상징하는 달보다 낮을 밝히는 남성적 상징인 태양에 무게가 실리며, 남성의 상징은 긍정적인 것이 되고 여성의 그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 여성과 신화

▲ 수메르 신화와 기독교 신화

메소포타미아의 이나나 여신 신화에서, 여신이 남신으로 바뀌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수메르 신화에서 최초의 우주의 상태는 물이다. 모든 것의 근원은 물인데 이 물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뱀이다. 고대 근동지방이나 원시종교 등에서는 뱀이 많이 등장한다. 신화에서 뱀은 왜 그렇게 자주 등장할까. 뱀은 물기가 많은 땅에 산다. 또한 허물을 벗고 새끼를 낳는다. 물과 땅, 돌고 도는 환생은 여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자들은 뱀이라는 상징을 가지게 된다. 기독교의 창세기에서 뱀은 인간을 유혹해 악을 세상에 가져다준 존재다. 수메르 신화에서는 죄를 가지고 오는 것은 남성이지만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뒤바뀐다. 남성이 기득권을 가지면서 여성, 여신을 부정적인 것으로 전락시키면서 우열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면서 가부장제도가 탄생하는 것이다.

▲ 살해당하는 여신, 자연

여신의 역할이 남신으로 대체되기도 하지만, 종종 여신들은 살해되기도 한다. 이것은 구석기 신앙에서 기독교로 넘어오게 되는 그리스도 신화에서 많이 나타난다. 여신들을 죽일 때는 다시는 부활할 수 없도록 죽인다. 여신들은 천지만물, 자연을 상징한다. 여신의 죽음으로 자연도 곧 죽은 사물이 된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의 소유에 의해서, 자연은 인간의 소유에 의해서만이 의미를 얻게 된다는 사유가 등장하게 된다. 자연에 대한 인식들은 다양하다. 또한 자연을 살아있는 삶으로 볼 것인지, 죽어있는 사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자연과 삶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된다. 자연을 죽어있는 사물로 여겼을 때 자연은 인간의 편리에 의한 하나의 수단이자 재료일 뿐이다. 그래서 인간의 발전, 개발이라는 미명하게 자연은 마구 파헤쳐지고 환경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자연이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보며, 그들의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이라고 한다.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듯이, 인간이 자연을 억압했던 것을 더 많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여성의 시선에서 글쓰기

우주만물의 원리자이자 창조자의 자리에 있었던 여신이, 그 자리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며 여성도 타자화 되었다. 우리가 남성들에 의해 쓰인 신화에 의해 사유하고, 그것을 근거로 논리를 내세운다면, 아무리 여성해방을 부르짖어도 그 근거, 뿌리가 올바를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런 신화의 역사를 알게 된다면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여성에게 무엇을 박탈했는지를 알 수 있다. 오늘날의 문학에도 남성들의 신화는 건재하다. 이것을 비판적으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성의 시선에서 글쓰기가 이뤄져야 한다. 읽기, 쓰기, 비평하기가 모두 여성의 시선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문단의 권력은 남성들이 잡고 있고, 여성들이 두각을 보이면 센세이션으로 치부될 뿐이다. 또한 널리 읽히는 고전에서 왜곡된 여성상은, 그다지 고려되지 않은 채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페미니즘 비평도 사회에서는 그다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이런 외적인 요소도 여성의 글쓰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 여성 글쓰기의 시도들

여성의 시선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성의 글쓰기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여성의 정체성을 가진 글쓰기가 행해진다. 메두사의 웃음을 쓴 식수와 이리가레 등이 대표 작가들이다. 특히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여성의 정체성이 글쓰기에서, 어떻게 새롭게 구현되는지를 모범적으로 실험해보려는 시도를 한다. 라캉이나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체성을 파헤쳐가는 정신분석학을 발전시킨다. 그러나 그것에만 근거해서 이론화 작업을 하면, 여전히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재생산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이론에는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 내재되어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시 설명하려면 신화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이때의 신화는 여신이 죽임을 당하기 전, 원형적인 신화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여성의 글쓰기

◆ 여성적 글쓰기

▲ 상징계의 해체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여성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 속에서의 상징계를 해체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문학 작품 속에서 주인공은, 용기 있고 진취적으로 세계를 개척해가는 남성들이다.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도 있지만, 그때 그려지는 여성은 주체성을 가지고 사회와 직접 대면하는 인물보다는, 모든 것을 인내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인내의 미덕을 가진 여성들이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에게 부여된 그런 편견을 해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그런 해체를 시도하지만, 작가 자신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작가도 같은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 여성의 글쓰기 형성

여성의 글쓰기를 시도하는 작가들은, 기존 논리의 문법적 구조가, 여성에는 어떻게 모순이 되고 다르게 적용되는가를 그려내는 역할을 한다. 남성들의 논리에 의해 글쓰기를 하게 되면, 그 논리에 길들여져 있는 사회에서는 그 논리의 귀결이 그 안에서 쳇바퀴처럼 돌기 때문에, 달리 새로운 여성의 글쓰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성들이 다른 공간을 창출해내는 방법 중 하나는, 기존의 논리적 문장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서 여성의 글쓰기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 여성적 글쓰기의 대표 작가들

- 식수
- 이리가레이
- 크리스테바

* 참고자료

엘렌 식수 『메두사의 웃음/출구』동문선, 2004

* 참고자료

벨기에의 철학자

뤼스 이리가레이[Luce Irigaray 1934 ~]

라캉의 제자로 크리스테바, 식수와 더불어 급진적 페미니스트로 분류됨

* 참고자료

프랑스 기호론학자. 불가리아 출생

줄리아 크리스테바 [Julia Kristeva, 1941 ~]

▲ ‘여성’작가?

여성작가, 여류화가 등 작가의 성별이 여성이면 ‘여성~’ ‘여류~’라는 접두어가 붙는다. 여성작가는 작가의 역할보다, 여성이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역할이 우선시되어

야 하며, 예술가로서의 작업은 그 다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의 일과 작업에서 가정이 먼저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시사된다. 남녀구분을 위해 굳이 붙여야 할 때도 있지만 여성작가, 여류작가 등의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여성의 글쓰기

① 이데올로기

상징계를 해체하려면 이데올로기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이성적 사유가 요구된다. 보통 여성들의 글쓰기는 신변잡기나 가정사를 쓰는 것으로 여겨지고, 실제로 그런 작품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주제선정에 있어 지평을 확대하는 데 제한적이다.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깊이와 넓이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선입견으로 하찮게 여겼던 여성이 그리는 주제들은 결코 하찮은 것은 아니다. 여성이 역으로 남성들이 사소하게 여겼던 것들을 통해, 깊고 넓게 들어갈 수 있는 안목을 갖춰놓는다면, 여성의 글쓰기는 남성과는 다르게 다양한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제공해줄 수도 있다.

② 서사적

기존의 이데올로기는 서사적 표현을 통한다. 따라서 이런 서사적 표현을 하거나 읽을 때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 여성의 읽기 실천

여성의 읽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텍스트 내부에 존재하면서, 그것의 가차 없는 논리에 저항하는 여성만의 공간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다시 말해서 여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안의 공간들을 소중히 지키면서, 그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먼저 전통인 플롯이 함축하는 이데올로기에 반대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서사적 관점이 지니는 호출의 능력, 우리들로 하여금 텍스트의 내부적 가치에 공모하도록 만드는, 무비판적인 읽기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것에 저항하면서 읽어나갈 때 비판적 안목이 주어진다. 텍스트가 스스로를 의문시하고, 전복시키는 저항의 순간들을 찾아내는 것이 건강한 여성들의 읽기가 되겠다. 그래서 가부장적 텍스트들이 갖는 권위와, 그들이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여성의 힘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언어나 이미지에 대한 분석이 모순이나 이중성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문학작품 속에서의 왜곡된 여성상

- 여성은 부차적인 존재

보통 남성들이 여성을 종속시키기 위해 사용한 전통적인 수단은, 남성이 아닌 것을 무조건 부차적인 것으로 정한 것이다. 남성은 여신의 지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늘 여성들에게 두려움을 갖는다. 여성의 창조성과 끊임없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두려움의 대상인 것이다.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남성들은 여성을 어떻게 하는가. 대등한 관계로 내버려두지 않고 종속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지배적인 성으로서의 남성을 여성들에게 강조하고, 세뇌시키고 그런 장치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문학에서도 마찬가지다. 여성은 남성을 유혹하는 존재, 죄를 가져오는 부도덕한 존재로 그려진다. 옛날에는 종교로까지 발전한 경외의 대상이었던 여성의 출산도, 성적인 타락과 결부시켜 드러낸다. 남성은 가질 수 없는 출산능력을 두려워해서 격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남성은 도덕과 윤리를 만들어내어 여성의 성을 억압한다. 여성의 자율적인 삶을 원초적으로부터 차단하고 여성들을 억압하고 길들이는 것이다.

- 남성에게 종속되는 여성

사회는 죄를 가져온 인간이자 주체성 없는 인간인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해야 하고, 그래야만 평화와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을 말해주는 대변인의 역할을 문학작품이 한 것이

다. 그런 문학작품은 그 독자들, 교육자와 그의 피교육자들에게 널리 영향을 끼친다.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한 주도권을 넘기고, 남성이 성적인 주도권까지 장악하는 것이 많은 문학작품에서 그려진다. 남성은 원래 그런 존재라고 면죄부를 주고, 여성에게는 인내를 종용한다. 『실낙원』같은 작품을 봐도 여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성에게 종속되어서 순종하는 것이다. 여성은 늘 육체적, 감정적인 것과 연결되고, 남성은 늘 이성을 가지고 여성을 통제하고 총괄적으로 전체를 조망해주며, 방향을 제시해주는 존재로 그려진다. 문학작품에서 어떤 여성이 등장하든 여성에게 미덕은 육체적 순결과 남성에의 순종이다. 지금도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 남녀가 연인관계가 되면, 남성은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자기가 선별해 여성에게 강요한다. 또 인구의 반은 여자임에도, 사회생활에서 남성들이 여성들을 대할 때 하나의 사회인으로, 파트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본다. 인구의 반이 스쳐지나가면서 만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남자들은 여자를 대할 때 하나의 파트너십으로, 하나의 사회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 본다. 능동적인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태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여성들의 사회생활이 힘들어진다.

* 참고자료

존 밀턴 『실낙원』 범우사, 1999

- 남성을 벗어난 여성은 추녀나 악녀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아나가려는 여성들은 남성들의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녀로 그려진다. 『B사감과 러브레터』에서의 B사감도 따져보면 자신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이지만, 알고 보면 남성을 간절히 원하는 존재라고 희화화되어 그려진다. 여성은 모두 성적인 것을 갈망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나이든 미혼 여성을 보는 시각도 그렇다. 속된 표현으로 '남자 맛을 못 봐서 그렇다'는 것이다. 많은 문학 작품들 속에서도 실지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다. 남성에게 순종하는 여성은 예쁘게, 아름답게 그려내고, 그렇지 않은 여성들은 못생기거나 악녀 같은 여자로 그린다. 서사적 관점에서 보면 남성들이 1인칭 관점이든지 3인칭 관점이든지 관찰자시점에서 그려내고, 그것이 텍스트의 지배적인 가치들이나 가정들에 공표하도록 독자들을 끌어낸다. 우리 여성도 이런 문학작품에 알게 모르게 세뇌당해서, 노처녀 히스테리 같은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포스트모더니즘시대와 여성의 글쓰기

▲ 새로운 읽기, 쓰기-기존 이데올로기에의 저항

소설이나 시나 플롯구조를 보면 여성의 운명이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선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다. 또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형벌을 달게 받는다. 아직도 문학 작품은 그런 논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글쓰기, 읽기를 해야 한다. 문학작품을 단순히 따라가는 식으로 읽다 보면 기존의 억압 이데올로기를 읽어낼 수 없다.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읽어내야 한다.

▲ 의심받는 여성의 주체성

문학작품 속에서 사랑은 어떻게 그려지는가. 남성의 일방적인 애정공세에 여성들은 감격해하며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 여성의 운명이라는 것도 누구에 의해 언제 그렇게 규정되어졌는가,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또 남성들이 성공하면 그 사람의 개인적 능력과 노력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성공한 여성을 설명해내는 서사적 관점은 남성에게 공로를 돌리는 것이다. 실제로도 그렇다. 사회는 여성이 무엇을 성취할 때 그 여성을 일차적인 주체로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주체에 의해서 파생된 결과물로서 본다. 『주홍글씨』를 보면 남성과 여성이 같이 사랑한다. 오히려 남성의 유혹을 여성이 사랑이라는 이름에도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벌을 받고 남성은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남성의 양심이 작동하긴 했지만, 성직자로서의 양심이지 여성에 대한 것은 아니다. 여성은 평생 징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모든 죄는 여성에게 돌려진다. 그것 자체도 문제지만 사회가 당연시하는데 문제가 있다. 또 여성의 성공을 보는 여성의 시선도 비뚤어져 있다. 같은 여성들이 성공할 때 그것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배후를 의심하는 것이다. 또 남성들은 여성이 사회로 들어오려고 하면 강한 경계심을 보인다. 그래서 여성은 사회에 들어가더라도 오래 못 버티고 나가거나 모욕을 견뎌야 한다. 설혹 맞서 싸워 이기더라도 그 여성은 독한 여자, 이기주의자로 그려진다.

* 참고자료

나다니엘 호손 『주홍글씨』문예출판사, 2004

▲ 기존 텍스트를 새로운 관점의 발판으로

남성들은 이런 왜곡된 여성상을 어디서 습득하는가. 남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문학작품에서 그려지는가, 아니면 문학작품에서 그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갖는 것인가. 양쪽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문학으로 형상화된 사고방식은 과거의 것이지만, 그것을 읽는 것은 현재의 독자다. 문학이라는 텍스트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하나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사회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하나의 요소가 된다. 과거를 답습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긍정적으로 읽어낼 수 있으면, 오히려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제대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읽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읽어야 한다.

▲ 포스트모더니즘시대, 여성 글쓰기의 호기

그렇다면 여성의 글쓰기는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다. 여성도 그 시대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존재고 과거로부터 영향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은 억압받은 자로서의 희노애락, 아픔을 공감하기 때문에, 남성들에 비해 이데올로기 비판이 더 수월하게 행해질 수

있다. 미래에 대한 보다 더 창조적인 글쓰기가 남성에 비해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이 자기의 사유에 대한 이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면, 이데올로기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힘만 가질 수만 있다면, 오히려 여성의 글쓰기가 미래에서는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아마 포스트모더니즘시대의 여성의 강점일 수도 있는 것이다. 지난 시대에 비해 포스트모더니즘시대는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혜택이다. 그러므로 오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이, 그와 비례해서 이뤄내야 할 것들에 대한 책임이 큰 것이다. 이런 시대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과거의 여성들은 얼마나 큰 노력을 했겠는가. 이런 호기를 건강하게 지속시키지 않고 과거를 답습하는 우를 범한다면, 전체 여성의 쳇바퀴를 과거로 돌리는 것이다. 여성이 책임감을 느끼고 이데올로기를 벗겨서, 인간 본연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그것을 생활화 하고, 그래서 남성도 여성도 어느 쪽에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보완적인 역할로 나아갈 수 있으면, 오히려 여성보다도 남성에게도 혜택일 수 있다.

▲ 구원의 목소리인 여성주의

최근 현대 자본주의에서 성공모델로 꼽히는 남성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는 지금의 위치에서 떨어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으로, 한 순간도 편해본 적이 없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무능력한 남편, 아버지가 되지 않도록 시지프스 신화처럼, 매일 돌을 굴려 올리는 삶을 사는 것이 현대 남성들의 비극이다. 이런 남성들에게 평화와 휴식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여성주의에 의해 마련될 수 있다. 있는 그대로의 삶, 솔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여성주의는 남성을 위협하는 불필요한 요소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이 더불어서 질적으로 성숙하고, 풍요롭고 다양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계기로 작동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주의가 남성들에게도 구원의 소리일 수 있는 것이다.

▲ 모두를 위한 여성적 글쓰기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의 모색으로서 여성주의가 이해되어야 하며, 여성의 그런 관점을 이제는 글쓰기를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새로운 테마, 새로운 주제를 보여주어야 한다. 가정에서의 삶뿐만 아닌, 사회의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도 여성의 입장, 여성의 관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그려질 수 있는 글쓰기가 이뤄져야 되고, 그런 문학작품이 많이 생산돼야 한다. 희생하고 인내하는 어머니가 아닌, 새로운 어머니상을 다룬 작품이 있는가. 없다. 그런 것을 여성이 쓸 수 있어야 한다. 슈퍼우먼이 아닌 현실의 직장 여성이라든가, 사랑받는 여성이 아닌 사랑하는 주체로서의 여성, 옛날 여인들 삶의 재구성 등 쓸거리는 무궁무진하다. 새로운 관점에서 여성 글쓰기의 지평을 확대시켜나간다면 문화의 주체로서의 여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